

2022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국 어

수험 번호 : ()

성 명 : ()

제1차 시험	3 교시 전공 B	11 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 (가)는 학생의 작문 노트이고, (나)는 교사가 학생의 글을 분석한 자료이다. ㉠,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가)

[쓰기 계획]

- 작문 목적: 청색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
- 예상 독자: 청색 기술을 알지 못하는 반 친구들
- 전달 매체: 학급 문집

[초고]

최근 녹색 기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로 청색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청색 기술은 벨기에 환경운동가 군터 파울리가 쓴 『청색 경제』라는 책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이다.

우리가 흔히 ‘찍찍이’라고 부르는 벨크로는 청색 기술이 적용된 대표적인 예이다. 벨크로는 국화과 식물인 도꼬마리 씨앗의 갈고리 모양 돌기를 본뜬 것으로, 양면에 있는 고리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달라붙는 특성을 도꼬마리에서 빌려 온 것이다. 물총새에서 영감을 얻은 일본의 신칸센 열차도 청색 기술이 적용된 예이다. 신칸센 열차의 속도가 빨라질 때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총새의 부리 모양을 본떠 열차의 앞부분을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청색 기술을 적용한 또 다른 예로는 아프리카 흰개미 집을 응용한 자연 냉방 건물, 모기 침의 돌기를 흉내 낸 무통 주사기 등이 있습니다.

(나)

베레이터(C. Bereiter)가 구분한 쓰기 능력 발달 단계를 참고할 때, 이 학생은 아직 의사소통적 쓰기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의사소통적 쓰기 단계는 그 이전 단계인 (㉠) 쓰기 단계의 기능에 사회적 인지 기능이 통합된 것이데, 학생의 글을 살펴보면 이 학생은 맞춤법이나 문법 규칙에는 익숙한 것으로 보이나 독자를 고려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적 쓰기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필자는 독자도 자신과 같은 배경지식을 가지고 글을 읽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생략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 학생 역시 그러한데, 독자를 고려할 때 [A]에서 청색 기술의 (㉡)을/를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하고 있다. 이는 이 학생이 아직 자기중심적 글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해라’체와 ‘하십시오’체의 혼용으로도 독자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가)~(다)를 읽고, <보기>의 ㉠,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가)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놓아라 龜乎龜乎出水路
 남의 부녀 뺏어간 죄 얼마나 큰가 掠人婦女罪何極
 네 만일 거역하여 내어놓지 않으면 汝若悖逆不出獻
 그물로 잡아 구워 먹으리라 入網捕掠燔之喫

- 「해가」 -

(나)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긴히든 그즈리잇가
 즘든 히를 외오곰 녀신들
 즘든 히를 외오곰 녀신들
 믿잇든 그즈리잇가

- 「정석가」 -

(다)

남의 님 향훈 뜻지 죽으면 엇더홀지
 상전(桑田)이 변호여 벽해(碧海)는 되려니와
 님 향훈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보기>

한국 시가에서는 동일 어휘, 동일 어구, 동일 어법, 소재, 시적 발상 등이 반복 또는 변용되어 활용되는 특징이 있다. (가)는 『삼국유사』 ‘수로부인’ 이야기에 나오는 「해가(海歌)」로, ‘호명-명령-가정-위협’의 구성을 취한 고대가요 「구지가」가 변이를 거쳐 후대로 전승된 것이다. (나)는 고려속요 「정석가」의 제6연인데, 같은 노랫말이 고려속요 (「 ㉠ 」)에도 나타난다. (다)는 조선 후기 가집에 수록된 작자 미상의 시조로, (「 ㉡ 」) (이)라는 표현은 정몽주의 「단심가」로부터 전승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훌륭한 작품의 표현이나 기법은 반복 또는 변용의 방식으로 활용되는데, 주제나 정서의 전달과 공감의 확보 등 노래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는 한국 시가의 표현이나 기법이 문화적으로 축적된 공동체 모두의 자산임을 보여 준다.

3. 다음은 '화자의 공신력'에 대한 수업 자료이다. (가)와 (나)를 바탕으로 (다)의 교수·학습 활동을 분석한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화자의 공신력에 대한 설명 자료

아리스토텔레스가 개념화한 '에토스'는 설득 의사소통을 연구하는 후대 여러 학자들에 의해 공신력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공신력은 화자의 능력, 지성, 성품, 진실성 등을 포함하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한편 화자의 능력이나 성품 등에서 비롯된 화자의 공신력은 담화 밖에서 이미 형성되어 발표나 연설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화자의 공신력은 청중에 의해 지각되고 판단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청중이 발표나 연설을 듣기 전에 인식한 화자의 공신력은 연설 내용과 전달 과정에서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은 화법 교육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자의 입장에서 화자의 공신력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화자의 공신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담화 이전에 형성된 공신력과 이후의 공신력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나) 강연 영상 자료

안녕하세요. 작가 윤○○입니다. 혹시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문예 창작을 전공하고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해 오면서 현재까지 10여 편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이 좋게도 ∇∇문학상을 수상했고,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타이틀도 얻었습니다. 아마 저의 이런 이력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강연할 내용은 '글쓰기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저의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글쓰기가 왜 어려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글쓰기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제 오랜 화두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인생에는 늘 글쓰기가 함께 했습니다. 그런 저조차 글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조정래 작가 역시 자신의 책에서 '황홀한 글 감옥'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첫 문장' 때문입니다. 첫 문장을 쓰기 직전이 가장 두렵습니다.

...(중략)...

"글을 쓸 수 있는 한,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라고 했던 어느 소설가의 말처럼, 글쓰기를 우리의 삶의 일부로 인식한다면 여러분도 글쓰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 교수·학습 활동 자료

[학습 활동]

1. 강연을 듣기 전에 아래 제시된 강연자의 이력을 확인하고, 강연자의 공신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자.

윤○○ 작가 - ∇∇문학상 외 다수 수상 - 소설 △△△, □□□ 외 다수 출판 - 현재 연 50회 이상의 글쓰기 강연 중

2. 강연을 들으면서 청자의 입장에서 강연자의 공신력을 분석해 보자.

강연 내용	→	관련되는 공신력 요소와 그 이유
• 저는 문예 창작을 전공하고 ~ 타이틀도 얻었습니다.	→	㉠
• 글쓰기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제 오랜 화두였습니다. 여러분도 ~ 쉽지 않았습니다.	→	㉡
∴	→	∴

3. 강연을 듣고 난 후, 강연자에 대한 공신력의 변화를 청자의 입장에서 평가해 보자.

- (1) 강연을 듣고 난 후에 느낀 강연자에 대한 공신력을 정리해 보자.
- (2) 강연자에 대한 공신력이 '강연 전'과 '강연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판단해 보자.

강연을 듣기 전	강연을 들은 후

(3) (2)의 활동을 통해 강연자에 대한 공신력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4. 3을 바탕으로 화자로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실천 방안을 말해 보자.

<작성 방법>

- ㉠, ㉡에 들어갈 내용을 공신력 구성 요소와 관련지어 각각 서술할 것.
- (가)를 활용하여 학습 활동 3의 의의를 '화자의 공신력' 교육 차원에서 2가지 서술할 것.

4. 다음은 어떤 학생의 주제 파악하기 능력에 대한 포트폴리오 평가의 일부이다. 주제 파악하기 지도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진단 평가

김○○ (2021. 03. 10.)

※ 다음 글을 읽고 주제가 무엇인지 쓰시오.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들은 오래전부터 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해 왔다. 가령, 자동차를 생활필수품으로 여기는 미국에서조차 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 설계를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추세이다. 비만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건기의 운동 효과가 주목받으면서부터는 공공 기관에서 지역의 보행 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공공 기관에서 지역의 보행 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나) 수업 일지

- 1차(2021. 03. 10.): 오늘 진단 평가 결과를 보니 이 학생을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직접 평가를 통해 이렇게 일지를 작성해 두면, 나중에 질적 평가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2차(2021. 03. 17.): 주제 파악하기 과제를 하는데 글을 읽고는 별 고민 없이 아무 구절이나 가져다 쓰는 듯함.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 3차(2021. 03. 24.): 진단 평가에서와 같은 유형의 글을 가지고 주제 문장 찾기를 지도함. 요구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였음을 확인함.

첫 문장부터 순서대로 읽어 가다 중간에 멈춤. 다시 돌아와 처음부터 다시 읽음. 다음 부분으로 읽기를 이어가면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곳들에 밑줄을 그음. 중요한 내용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 [A] 같았음. 끝까지 다 읽고는 밑줄 그은 문장을 살핌. 잠시 생각해 보더니 그중 한 문장에 체크 표시를 함. 그리고 그 문장을 주제로 말함.
- 4차(2021. 03. 31.): 이번에는 주제 문장이 나타나지 않은 글을 주고 주제 파악하기 활동을 하게 함. 지난번과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당황해 함. 글을 읽다가 멈추고 다시 읽기를 몇 번 반복하다가 그냥 다음 문제로 넘어가 버림. 다음에 형식 평가 방식으로 다시 확인해 보아야겠음.

(다) 형성 평가

김○○ (2021. 04. 07.)

※ [1~3]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며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다른 문화권의 관행도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고안해 낸 현명한 행동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류학자 마빈 헤리스는 인도인이 암소를 숭배하고, 이슬람교도가 돼지고기를 피하는 금기를 환경에 따른 합리적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피상적으로 보면 종교적 금기로만 이해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효과적으로 소를 이용하고 더운 기후에서 우려되는 질병을 피하는 등의 지혜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1. 위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해하기 힘든 다른 문화권의 관행도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현명한 행동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서는 주먹을 쥐고 이마에 갖다 대는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이 행동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쉽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V 포시는 승리 또는 평화의 의미로 여겨진다. 하지만 영국 문화권 나라들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물론 손톱이 밖으로 보이게 해야 이 뜻으로 사용된다. 우리에게는 별 의미 없는 행동이지만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엄지를 무는 제스처는 상대방의 온 가족을 한꺼번에 욕하는 표현이 된다. 몇몇 나라에서 팔짱을 끼는 행위는 무엇을 생각하는 중이거나 기분이 조금 언짢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핀란드와 아이슬란드에서 팔짱을 끼면 건방지고 오만하게 생각될 수 있다.

2. 위 글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3. 위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서는 주먹을 쥐고 이마에 갖다 대는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작성 방법>—

- (나)의 [A]에서 사용된 평가 방법을 쓰고, 그 특징을 설명할 것.
- (다)의 2번, 3번 문항의 결과와 관련하여 이 학생에게 추가적으로 지도해야 할 구체적인 읽기 지도 사항 2가지를 쓸 것.

5. 다음은 음운 변동들 간의 적용 순서에 대한 것이다. (1), (2)에 적용된 음운 변동들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설명하시오. [4점]

둘 이상의 음운 변동이 적용될 때는 음운 변동들이 순서 없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음운 변동들 간에 내재적인 순서가 있다. 예컨대 ‘놓아(/noha/) → [와:]([nwa:])’의 경우, 표면형 [와:]에 적용된 분절음의 음운 변동은 ‘/ㅎ/ 탈락’과, ‘/o/ → /w/’ 즉 ‘/w/ 반모음화’ 두 가지이다. 이때 두 음운 변동 간의 적용 순서는 ‘/ㅎ/ 탈락’ > ‘/o/ → /w/’이다. 왜냐하면 ㉠ ‘/ㅎ/ 탈락’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o/ → /w/’의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둘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표면형에서는 음운 변동들 간의 적용 순서를 분석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1) 일일이[일리리], 휘발유[휘발류]
 (2) 섭리[섭니], 학력[항녁]

—<작성 방법>—

○ (1), (2) 각각에 적용된 구체적인 음운 변동들을 적용 순서를 밝혀 쓰고, 왜 그러한 순서이어야 하는지를 ㉠과 같은 형식으로 각각 설명할 것.

6. 다음을 읽고, (1)에 나타난 문장의 확대 방식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흐문장이 둘 이상 모여 더 큰 문장으로 확대된 것을 ‘겹문장’이라고 한다. 겹문장을 만드는 방식은 문장을 나란히 연결하는 ‘접속’과, 한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안기는 ‘내포’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 두 방식이 함께 사용되어 더 큰 문장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렇게 확대된 문장에 포함된 안긴문장이나 이어진 각 문장을 흔히 ‘절’이라 부른다. 그리고 문장이 확대될 때에는 문장 성분, 선어말 어미, 종결 어미 등이 생략되기도 하고, 절 사이의 관계에 따라 전성 어미 또는 연결 어미가 결합된다.

(1) 영수가 어항에서 노니는 물고기를 보면서 긴장이 풀어짐을 느꼈다.

—<작성 방법>—

○ (1)에서 안긴문장의 서술어 2개를 찾아 쓰되, 전성 어미 결합형 그대로 쓸 것.
 ○ (1)의 선행절과 후행절을 접속 이전의 문장으로 각각 쓰되, 생략된 요소들을 모두 채워서 쓸 것.

7. 다음을 읽고, 중세 국어 ‘빔’과 ‘쓰다’의 의미에 대하여 탐구한 결과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현대 국어 ‘비싸다’는 기원적으로 중세 국어의 ‘빔(이) 쓰다’에서 온 단어이다. 중세 국어 ‘빔’은 현대 국어 ‘빔’으로 이어진 말인데 “빔”의 의미도 가지지만 ㉠ 다른 의미도 가진다. 그리고 중세 국어 ‘쓰다’는 현대 국어 “싸다(저렴하다)”의 의미로는 전혀 쓰이지 않았고, 오히려 “싸다(저렴하다)”와 반의 관계에 있는 ㉡ “비싸다”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가)

- 太子 | 앓겨 ㅁ스매 너교디, ‘㉠ 비들 만히 니르면 몸 삶가’
 햏야 널오디, “金(금)으로 싸해 ㅁ로물 ㅁㅁ 업게 햏면 이 東山을
 프로리라.**” <석보상절>
- 그릿 孝道 | 至極(지극)햏썈 하늘히 나를 브려 ㉡ 빔 겁게
 햏시니라. <삼강행실도>

* ㅁㅁ: 틈.
 ** 프로리라: 팔겠다.

(나)

- 王이 婆羅門(바라문)드려 무르샤디 “이 아기 겁술 언마* 바들
 따?” 婆羅門이 ㅁ 對答(대답)햏야 잇거늘, 그 아들이기 솔보디,
 “나는 銀돈 一千과 수쇼 一百과 ㉢ ㅁㅁ 누의는 金돈 二千과
 암쇼 二百이 ㅁㅁ이다.” <월인석보>
- “빔 겁슨 ㉣ ㅁㅁ디던가?” “빔 겁슨 니건 ㅁㅁ 겁과 햏가
 지라 햏더라.” <번역노걸대>

* 언마: 얼마.
 ** 니건 ㅁㅁ: 지난해의.

※ (가)와 (나)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띄어쓰기를 하고 문장 부호를 붙였음.

—<작성 방법>—

○ (가)의 ㉠, ㉡ 중 ㉠을 가진 ‘빔’을 고르고, ㉠이 어떤 의미인지 쓸 것.
 ○ (나)의 ㉢, ㉣ 중 ㉣의 의미를 가진 ‘쓰다’를 고르고, 그 판단 이유를 설명할 것.

8. 다음을 읽고, <보기>를 참고하여 시의 함축적 의미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툇툇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
 그믐처럼 멎은 줄고
 멎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줌의 툇툇를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 속에서
 찌르르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낮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 한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 광재구, 「사평역에서」 -

(나)

산이 저문다.
 노을이 잠긴다.
 저녁밥상에 애기가 없다
 애기 앓던 방석에 한 쌍의 은수저
 ㉡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

한밤중에 바람이 분다.
 바람 속에서 애기가 웃는다.
 애기는 방 속을 디러다본다.
 들창을 열었다 다시 닫는다.

먼- 들길을 애기가 간다.
 맨발벗은 애기가 울면서 간다.
 불러도 대답이 없다.
 그림자마저 아른거린다.

- 김광관, 「은수저」 -

<보 기>

(가)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참조하여 감상할 수 있다. 이 작품은 1980년대 초반 ㉠ 누구도 쉽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시대의 분위기를 드러낸 작품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가)에 나타난 시의 분위기는 마냥 암울하지만은 않다. 시적 공간인 ㉡ ‘대합실’의 분위기를 ‘툇툇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나)는 작품의 내적 맥락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시에는 주제를 환기하는 데 효과적인 이미지들이 구조화되어 있다. 이를 유기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화자의 서정(抒情)을 읽어 낼 수 있다.

<작성 방법>

- ㉠가 나타나는 시행 1개를 (가)에서 찾아 쓰고, ㉡를 서술할 것.
- ‘눈물’을 흘리게 하는 대상에 주목하여 ㉠, ㉡의 함축적 의미를 비교하여 서술할 것.

9. (가)는 ‘소설의 등장인물을 이해할 수 있다.’는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선정한 작품이고, (나)는 해당 수업에서 이루어진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이다. (가), (나)를 읽고 소설의 등장인물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철썩, 앞집 판장 밑에서 물 내버리는 소리가 났다. 주먹구구에 골독했던 안초시(安初試)에게는 놀랄 만한 폭음이었든지, 다리 부러진 돌보기 너머로, 툇툇 먹이를 쪼려는 닭의 눈을 해 가지고 수챗구멍을 내다본다. 뿌연 뜨물에 휩쓸려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다. 호박 꼭지, 계란 껍질, 거피해 버린 녹두 껍질.

“녹두 빈자떡을 부치는 게로군. 흥…….”

㉠ 한 오륙 년째 안초시는 말끝마다 “젠장……”이 아니면 “흥!” 하는 코웃음을 잘 붙였다.

“추석이 벌써 널 모레지! 젠장…….”

안초시는 저도 모르게 입맛을 다시었다. 기름내가 코에 풍기는 듯 대뜸 입 안에 침이 흥건해지고 전에 괜찮게 지낼 때, 충치니 풍치니 하던 것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아래윗니가 송곳 끝같이 날카로워짐을 느끼었다.

안초시는 그 날카로워진 이를 빈 입인 채 빠드득 소리가 나게 한번 물어 보고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천리같이 트였는데 조각구름들이 여기저기 널렸다. 어떤 구름은 깨끗이 바래 말린 옥양목처럼 흰빛이 눈이 부시다. 안초시는 이내 자기의 때 묻은 적삼 생각이 났다. 소매를 내려 다보는 그의 얼굴은 날래 들리지 않는다. 거기는 한 조박의 녹두 빈자나 한 잔의 약주로써 어찌지 못할, 더 슬픔과 더 고적함이 품겨 있는 것 같았다.

흑흑 소매 끝을 붙어 보고 손끝으로 튀겨 보기도 하다가 목침을

11. 다음을 읽고, <홍부전>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 하시오. [4점]

(가)

홍부가 칠산 조기 껍질을 벗겨 제비 다리를 싸고 실로 찬찬 동여 찬 이슬에 얹어 두니, 십여 일이 지난 후 다리가 완구하여 제 곳으로 가려 하고 하직할 제, 홍부가 비감하여 하는 말이,

“먼 길에 잘 들어가고 명년 삼월에 다시 보자.”

하니, 저 제비 거동 보소. 양우광풍 몸을 날려 백운을 냉소하고 주야로 날아 강남을 득달하니, 제비 황제가 보고 묻기를,

“너는 어이 저느냐?”

제비 여쭙되,

“소신의 부모가 조선에 나가 홍부의 집에다가 집을 짓고 소신 등 형제를 낳았삽더니, 의외 대망의 변을 만나 소신의 형제 다 죽고, 소신이 홀로 아니 죽으려 하여 바르작거리다가 뚝 떨어져 두 발목이 자끈 부러져 피를 흘리고 발발 떠온즉, 홍부가 여차여차하여 절각이 의구하여 이제 돌아왔사오니, 그 은혜를 십분의 일이라도 갚기를 바라나이다.”

제비 황제가 하교하되,

“그런 은공을 몰라서는 행세치 못할 금수라. 네 박 씨를 갖다가 주어 은혜를 갚으라.”

하니, 제비 사은하고 박 씨를 물고 삼월 삼일이 다다르니, 제비 건공에 떠서 여러 날 만에 홍부 집에 이르러 넘놀 적에, 복해 후룡이 여의주를 물고 채운 간에 넘노는 듯, 단산 채봉이 죽실을 물고 오동상에 넘노는 듯, 춘풍 피꼬리가 나비를 물고 세류 변에 넘노는 듯 이리 가웃 저리 가웃 넘노는 것 홍부 아내 잠깐 보고 낙락하여 하는 말이,

“여보소. 지난해 갔던 제비가 무엇을 입에 물고 와서 넘노 읍네.”

이렇듯 말할 제, 제비 박 씨를 홍부 앞에 떨어뜨리니, 홍부가 집어 보니 한가운데 보은표라 금자로 새겨 있다.

… (중략) …

(나)

놀부 놈이 주야로 제비 집 앞에 대령하여 가끔가끔 만져 본즉 알이 다 꿍고 다만 하나가 깨었는지라. 날기 공부 힘쓸 제 구렁 배암 아니 오니, 놀부가 민망 답답하여 제 손으로 제비 새끼를 잡아 내려 두 발목을 자끈 부러뜨리고, 제가 깜짝 놀라 이르는 말이,

“가련하다, 이 제비야.”

하고 조기 껍질을 얻어 찬찬 동여 뱃놈의 닳줄 감듯 삼 층 열레 연줄 감듯 하여 제 집에 얹어 두었더라. 십여 일 후에 그 제비 구월 구일을 당하여 두 날개를 펼쳐 강남으로 들어가니, 강남 황제 각처 제비를 점고할 제, 이 제비 다리를 절고 들어와 복지 한대, 황제가 제신으로 하여금,

“그 연고를 사실대로 아뢰라.”

하시니, 제비 아뢰되,

“작년에 웬 박 씨를 내어보내 홍부가 부자 되었다 하여 그 형

놀부 놈이 나를 여차여차하여 절뚝발이 되었사오니, 이 원수를 어찌하여 갚고자 하나이다.”

황제가 이 말 들으시고 크게 놀라 가라사대,

“이놈이 제 전답 재물이 유여하되 동기를 모르고 오류에 벗어난 놈을 그저 두지 못할 것이요, 또한 네 원수를 갚아 주리라.”

하고 박 씨 하나를 보수표라 금자로 새겨 주니, 제비 받아 가지고 명년 삼월을 기다려 청천을 무릅쓰고 백운을 박차 날개를 부쳐 높이 떠 높은 봉 낮은 산을 넘으며, 깊은 바다 너른 시내며, 개골창 잔돌 바위를 훨훨 넘어 놀부 집을 바라보고 너홀너홀 넘놀거늘, 놀부 놈이 제비를 보고 반겨할 제, 제비 물었던 박 씨를 툭 떨어뜨리니, 놀부 놈이 집어 본다.

- 「홍부전」 -

<작성 방법>

○ (가)와 (나)를 대비하여 볼 때 확인되는 이야기 구조 2가지를 쓰고, 이에 해당하는 (가), (나)의 내용을 서술할 것.

<수고하셨습니다.>